

간 큰 서학개미... 美 조정장에 '3배 레버리지 ETF' 줍줍

해외주식 Click

매과발언 이후 美 증시 연속 조정 단기 반등 기대한 국내 투자자들 티큐·속슬 등 2억달러 규모 매수 한 달 간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였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자 단기 반등을 기대하며, 투기적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는 매과적이었던 잭슨홀 미팅 이후 공격적 긴축 우려가 확산되며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후 오는 7일(현지시간) 베이지북 공개, 8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장 연설 등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8월 29일~9월 4일)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1, 2위 종목에 이른바 '티큐'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8월 29일 ~ 9월 4일,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PROSHARES ULTRAPRO QQQ ETF(TQQQ)	1억189만
2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ETF(SOXL)	7350만
3	BMO MICROSECTORS FANG INNOVATION 3XLEVERAGED ETN(BULZ)	1578만
4	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JEPI)	1073만
5	PROSHARES ULTRA QQQ ETF(QLD)	863만
6	PROSHARES ULTRAPRO S&P 500 ETF(UPRO)	851만
7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	851만
8	마이크로소프트	825만
9	베드 배스 & 비온드	821만
10	알파벳 클래스 A	737만

/한국예탁결제원

와 '속슬'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두 상품 모두 3배 레버리지 ETF다.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티큐'는 나스닥100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 '속슬'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

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볼 3XETF(SOXL·DIREXIONDAILY SEMICONDUCTORSBULL 3X SHS ETF)다. 이 기간 1억189만달러, 7350만달러씩 유입됐다.

한편,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한달간 TQQQ와 SOXL은 -23.61%, -37.39%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꼬집었다.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 희망을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자산시장은 경기 부양책으로 뜨거워지다 급변각하는 '불과 얼음'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이전과 달리 높은 금리보다는 낮은 기업 이익이 주식시장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증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강했다. 미국 기술주, 나스닥 100 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및 ETF 상품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나란히 등장했다.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이노베이션 3X ETN(BULZ·BMO MICROSECTORSFANG INNOVATION 3X LEVERAGED ETN)은 미국 기술주 15개 종목의 주가를 3배로 추종한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AMD, 페이팔 등을 담고 있으며, 총 1578만달

러를 사들였다.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 ETF(QLD·PROSHARES ULTRA QQQ ETF)와 S&P500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S&P 500ETF(UPRO·PROSHARES ULTRAPRO S&P 500 ETF)도 각각 순매수 5, 6위로 집계됐다. 863만, 851만달러씩 유입됐다.

또 비교적 안정적인 월 배당 상품인 제이피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JEPI·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JEPI는 월 배당 ETF로,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비교적 선방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851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825만달러) ▲베드 배스 & 비온드(821만달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클래스 A 등을 순매수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대손준비금' 악재에 배당 불확실성... 은행株 줄하락

특별대손준비금 가능성에 배당 제한 요인 우려 높아져 코스피지수 반등에도 약세

금리상승기의 수혜주로 여겨진 은행주가 가계 대출 증가율 둔화, 배당 불확실성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은행주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발표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25일 이후 국내 대표 은행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4.37%, 4.66% 하락했으며,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또한 2.93%, 5.69% 떨어졌다.

나흘만에 코스피지수가 반등한 6일에도 은행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3만4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26%, 0.43% 떨어진 3만7950원, 1만1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KB금융만 전 거래일 대비 0.10% 상승한 4만 8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으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이 결국 은행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 시중은행.

/각사

국내 은행들은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신용 비용 축소 등으로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나 배당 불확실성 우려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손준비금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배당 가능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 배당 규모가 배당가능이익을 밀들기

때문에 당장에 전년 대비 주당배당금(DPS) 축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손익은 물론 배당까지 번지는 양상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줄면서 은행의 이자이익 성장 속도 또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최근 수신 포트폴리오

가 악화하는 속도가 높아지며 예대금리차 축소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최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도입되며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 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 축소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업대출 비중이 큰 기업은행은 방어여력이 높아 최선호주로 꼽혔다. 가계와 반대로 기업대출은 대출 성장과 금리가 모두 양호하며, 여전히 이자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에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라며 "기업대출이 성장과 마진 모두에서 가계대출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이 유리하다. 더불어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은행업종 내에서 배당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기대 수익률은 높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내달 분양

충남 아산 배방읍 세교리 일원 전용 84㎡, 총 893가구 구성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오는 10월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893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주택형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단지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85%에 해당돼, 신혼부부인 젊은 수요층과 생애 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초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 1

순위 자격이 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구역은 약 2만 6845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국고채 ETF 2종, 업계 최저보수 상장

신한자산운용, 총 보수 0.05%

신한자산운용이 6일 'SOL 국고채3년', 'SOL 국고채10년'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6일 밝혔다.

'SOL 국고채3년'과 'SOL 국고채10년'의 기초지수인 KAP 국고채3년지수와 KAP 국고채10년지수는 국내 채권형 대표 벤치마크가 되는 지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채권 실물을 직접투자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 및 선물투자제 제한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며 "총 보수가 0.05%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동일 유형의 타사 국고채 ETF 대비 5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투자시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SOL 국고채3년' 및 'SOL 국고채10년' ETF는 퇴직연금(IRP/DC)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높은 거래단위(장내 거래의 경우 100억원)와 종목 수 제한 등에 따라 접근이 제한적인 채권을 ETF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이번에 상장하는 국고채 ETF 2종의 경우 이자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연 1회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채권형, 채권환형 ETF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